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승 윤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분석 연구  
: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신 미 나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분석 연구

: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 승 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신 미 나

# 인 준 서

신미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배  민  수          인

심사위원           명  지  영          인

심사위원           이  승  윤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프랑스 작곡가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Sonata for cello and piano d minor)를 작곡하였던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이 소나타와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와의 연관성을 고찰한 것이다.

드뷔시는 낭만주의 음악에서 현대음악으로 가는 발판이 된 작곡가이다. 그는 전통적인 형식이나 화성을 탈피하고 음을 첨가하거나 생략하여 부가화음과 불협화음을 사용하였다. 또한 온음계, 반음계, 교회선법을 사용하여 명료한 표현보다는 느껴지는 생각과 이미지를 자유롭게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1915년 드뷔시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프랑스의 독일에 대한 반감으로 프랑스의 고전을 부활시키기 위한 창작에 몰두하였다. 그는 <여러 악기 편성에 의한 6개의 소나타>(six sonatas for divers instruments)를 계획하였는데 그 중 세 곡이 완성되었고, 완성된 첫 번째 곡이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였다.

드뷔시는 이 소나타에 독일의 성직자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프랑스의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La Marseillaise)를 인용하였다. 그는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주제선율을 조각내어 변형시키고 선율에 음을 첨가하거나 생략하여 독일을 상징하였다. 또한 프랑스 국가의 주제선율을 차용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관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성가의 주제선율을 이용한 추상적 표현은 독일의 일시적인 승리와 패배를 나타내고 <마르세유의 노래>와 이 소나타의 조성인 d단조는 프랑스의 승리를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가 드뷔시의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으로 작곡되었음을 보여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드뷔시	
1. 생애 .....	3
2. 음악적 특징 .....	6
III.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분석	
1. 작품배경 .....	16
2.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역사적 배경 .....	18
3. 작품분석 .....	23
1) 제 1악장: Prologue .....	26
2) 제 2악장: Sérénade .....	39
3) 제 3악장: Final .....	50
IV. 결론 .....	64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차

<표1>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의 구성 .....	23
<표2> 제 1악장의 구성 .....	26
<표3> 제 2악장의 구성 .....	39
<표4> 제 3악장의 구성 .....	50
<표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세유의 노래>가 인용된 마디 .....	68

## 악보 목차

<악보1> 7, 9, 11, 13화음 .....	7
<악보2> 드뷔시 <프렐류드1>(Prelude I No.5)의 <아나카프리의 언덕>(Les collines d'Anacapri) 마디1-4 .....	8
<악보3>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0)의 <카노프(Canope)> 마디14-15 .....	8
<악보4>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2)의 <불꽃>(Feux d'Artifice) 마디48-49 .....	9
<악보5> 4도 화음 .....	10
<악보6> 드뷔시 <에튀드1>(Etude I No.3)의 <4도를 위하여>(pour les quartes) 마디55-57 .....	10
<악보7> 드뷔시 <프렐류드1>(Prelude I No.10)의 <가라앉은 성당>(La Cathedrale Engloutie) 마디13-15 .....	11
<악보8> 드뷔시 <영상1>(Image I)의 <라모를 찬양하며>(Hommage à Rameau) 마디4-6 .....	12
<악보9> 5음음계 .....	12
<악보10> 온음음계 .....	13
<악보11> 화성만음계, 가락만음계 .....	13
<악보12> 드뷔시 <에튀드1>(Etude I No.5)의 <옥타브를 위하여>(Pour les Octaves) 마디31-32 .....	13
<악보13> 교회선법 .....	14
<악보14>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제 3악장 마디1-4 .....	15
<악보15>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의 <안개>(Brouillards) ·	15

<악보16>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19
<악보17> 드뷔시 <백과 흑으로>의 ‘제 2곡 Lent. Sombre’ 마디79-88 .....	21
<악보18>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분리된 동기들 .....	24
<악보19> 제 1악장 마디1-4 .....	27
<악보20> <내 주는 강한 성이요> F장조 .....	28
<악보21> 제 1악장 마디1 .....	28
<악보22> 제 1악장 마디8-11 .....	29
<악보23> 제 1악장 마디12-15 .....	30
<악보24> 제 1악장 마디16-19 .....	31
<악보25> 제 1악장 마디21-29 .....	33
<악보26> 제 1악장 마디29-33 .....	35
<악보27> 제 1악장 마디35-39 .....	36
<악보28> 제 1악장 마디39-44 .....	37
<악보29> 제 1악장 마디45-51 .....	38
<악보30> 제 2악장 마디1-5 .....	40
<악보31> 제 2악장 마디12-18 .....	41
<악보32> 제 2악장 마디19-27 .....	43
<악보33> 제 2악장 마디28-30 .....	44
<악보34> 제 2악장 마디31-32 .....	45
<악보35> 제 2악장 마디37-40 .....	46
<악보36> 제 2악장 마디44-51 .....	47
<악보37> 제 2악장 마디54-58 .....	48
<악보38> 제 2악장 마디59-64 .....	49
<악보39>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 .....	51
<악보40> 제 3악장 마디1-8 .....	53
<악보41> 제 3악장 마디15-20 .....	54

<악보42> 제 3악장 마디23-36 .....	55
<악보43> 제 3악장 마디37-44 .....	57
<악보44> 제 3악장 마디45-52 .....	58
<악보45> 제 3악장 마디57-62 .....	59
<악보46> 제 3악장 마디69-72 .....	60
<악보47> 제 3악장 마디77-83 .....	61
<악보48> 제 3악장 마디85-86 .....	62
<악보49> 제 3악장 마디100-103 .....	63
<악보50> 제 3악장 마디104-114 .....	64
<악보51> 제 3악장 마디114-123 .....	65

## I. 서론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는 20세기 음악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곡가이다.

인상주의 음악은 독일 낭만주의에 대한 프랑스의 반대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은 그들의 자부심이라 생각하는 고전적이며 전통적인 구조인 소나타 형식에 감정이입을 통해 음악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형식이 기질에 맞지 않았던 프랑스인들은 진정한 프랑스 예술을 찾아내려고 시도하였고 드뷔시는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sup>1)</sup> 그는 고전적 조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화성과 선법을 사용하였고 프랑스 음악의 단순하면서도 맑고 우아한 자유로운 음악을 표현하고자 했다.<sup>2)</sup>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1915)는 그의 후기 작품으로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이 발발하여 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반감이 가득한 시기에 작곡되었다. 그 당시 드뷔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인의 화살은 썩은 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다. 그들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프랑스는 일시적으로 패배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프랑스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독일이 프랑스의 육신을 파괴할 수는 있어도 결코 프랑스의 정신을 죽일 수는 없다.”<sup>3)</sup>

이 글에는 당시 드뷔시의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러한 감정은 같은 시기에 작곡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1)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52.

2)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과주: 도서출판 음악세계), 606.

3) Henry Lee Thomas, 「살아있는 전기총서7-위대한 음악가들」, 최동선 역 (서울: 종로서적, 1987), 287.

에도 영향을 미쳤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sup>4)</sup>들은 드뷔시의 음악적 특징이나 작품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 소나타에 관한 해외의 논문이나 학술지도 그리 많지 않는데, 특별히 레그노(Janelle Suzanne Ragno)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인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동기 변형에 의한 드뷔시의 첼로 소나타 분석연구”(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sup>5)</sup>에서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를 이 소나타에 인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드뷔시가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독일로 상징하고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La Marseillaise)는 프랑스로 상징하여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에 인용<sup>6)</sup>하였다는 레그노의 연구에 동의하여 성가의 배경과 이 소나타의 작품배경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대적 배경에 근거하여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에서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주제선율이 변형되어 인용되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1990년부터 현재까지 대략 20여편에 달하는 이 작품의 국내 석사학위논문은 대부분 음악적 특징과 화성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고은아, “드뷔시 음악에 관한 분석 연구: 첼로 소나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송금진, “C.Debussy 첼로 소나타<cello sonata in d minor> 반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광배리, “인상주의 음악을 통한 Claude Achille Debussy Cello sonata in d minor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등이 있다.

5)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D.M.A.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5).

6) Glenn Watkins, *Proof Through the Night: Music and the Great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92.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06에서 재인용.

## II. 드뷔시

### 1. 드뷔시의 생애

드뷔시는 1862년 8월 22일 프랑스의 생 제르망 앙 레(Saint Germain en Laye)라는 작은 마을에서 도자기 제조 및 판매점을 하는 아버지 마누엘 아실 드뷔시(Manuel Achille Debussy)와 어머니 마누리(Victorine Joséphine Sophie Manoury)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드뷔시가 태어나고 얼마 후 그의 부모는 어려워진 제조, 판매업을 정리하고 파리로 이주하면서 직업과 거주가 일정하지 않은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그의 가정은 어려웠고 드뷔시는 직접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드뷔시의 조상들은 모두가 상인이거나 농부인 조상들이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드뷔시에게 음악적으로 좋은 환경과 조건은 아니었다.<sup>7)</sup> 그의 아버지가 프랑스 혁명에 가담하여 감옥에 체포되었던 1871년경 드뷔시의 여자 형제들은 칸느(Cannes)에 있는 고모의 집에 맡겨졌고 드뷔시도 가끔 그곳에 들렀다가 고모에게 체르티(Jean Cerutti)라는 이탈리아 사람을 소개받아 피아노를 처음 배우게 되었다. 그 후 모테(Mauté de Fleurville, 1823-1883)를 만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더 착실하게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1872년 파리 국립음악원(Paris Conservatoire)에 입학하여 10살의 어린나이에 마몽텔(Antoine Marmontel)과 라비냐크(Albert Lavignac, 1846-1946)의 클래스에 들어갔다. 또한 뒤랑(Emile Durand, 1830-1909), 바질르(August Bazille), 기로(Ernest Guiraud, 1837-1892), 프랑크(Sésar Frank, 1822-1890)등 영향력 있는 음악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드뷔시는 1874년 쇼팽(Frédéric Francois Chopin, 1810-1849)의 <피아노

---

7) 이석원, 오희숙, 「20세기 작곡가 연구 I」 (서울: 음악세계, 2000), 65.

협주곡 제 1번>을 협연할 만큼 피아노실력을 인정받아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졌다. 1875년에서 1877년에 음악원 콩쿨에서 우수상을 받았지만 유능한 연주자로서의 길을 포기하리만큼 피아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나 바질르의 피아노 반주자 수업에서 그는 유일한 최우수상을 받았다.<sup>8)</sup> 후에 기로의 지도하에 드뷔시는 1883년 칸타타 작곡으로 로마대상 2등을 수상하였고, 다음해 1884년에는 칸타타 <탕자>(L'enfant Prodigue)로 1등상을 수상했다. 로마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그는 로마의 빌라 메디치(Villa Medici)에서 2년간 유학생활동을 하였는데, 그 시간들은 드뷔시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고 그는 의무화된 2년을 채우고 파리로 돌아왔다.

드뷔시는 학생시절부터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의 음악에 심취하였다. 1887년에 시작해 1889년에 완성한 그의 가곡 <보들레르의 5편의 시>(Cinq Poèmes de Baudelaire)에는 바그너적 화성진행과 관현악법의 모방이 나타난다. 바그너의 음악을 모방하고 체험하게 된 것은 드뷔시의 음악세계를 폭넓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888-1889년의 바이로이트 여행을 계기로 드뷔시는 바그너의 환상에서 벗어나 오히려 바그너의 음악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그는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Tristan and Isolde)와 <파르지팔>(Parsifal)에 대해서는 여전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관현악과 성악곡에서의 지루한 전개와 음악과 시의 반복적 설명에는 강제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드뷔시는 그러한 기술과 표현기법에서 피로와 무거움을 느꼈고, 바그너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그너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sup>9)</sup>

1889년 파리에서 개최된 만국박람회에서 자바의 가멜란(Gamelan)<sup>10)</sup> 소리

8) Tyrrell John, "Debussy Claude, 1. Childhood and studie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2nd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ress, 2001), 96

9) 음악 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드뷔시」(서울: 음악세계, 2002), 12.

10) 인도네시아 자바 지방의 민속음악. 이 민속음악은 징, 종, 북 등 각기 다른 음역과 음색을 지닌 다양한 타악기와 그들이 이루어내는 유연하고 복잡한 리듬 및 음향이 특징이다.

를 듣고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과 신선한 리듬, 타악기의 새로운 효과, 흔히 듣던 유럽음악과는 조금 다른 색깔의 멜로디와 울림의 매력에 감명을 받았다. 또한 글링카(Michail Iwanowitsch Glinka, 1804-1857), 보로딘(Aleksander Porfirjewitsch Borodin, 1833-1887),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witsch Mussorgsky, 1835-1881)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음악에 강한 흥미를 느꼈고 이는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찾고자 했던 드뷔시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1894년<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Prélude à l'après midi d'un faune)이 파리 국립협회에서 초연되면서 앙코르를 받고, 그 이후 1901년 <야상곡>(Nocturnes), 1902년<펠레아스와 멜리장드>(Pélleas et Mélesande)의 코믹오페라가 초연 되면서 그는 프랑스에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그가 많은 작품들을 발표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1900년을 전후로 드뷔시는 가장 독창적인 음악가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시기는 드뷔시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극적인 시기였다.<sup>11)</sup> 1899년 10월에 텍시에(Lily Texier)와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부유한 은행가의 아내인 바르닥(Emma Bardac)과 사랑에 빠지면서 1905년 아내 릴리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때 바르닥 사이에서 클로드 엠마 드뷔시(Claude Emma Debussy)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이 아이는 슈슈(Chou Chou)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었다. 바르닥과 사랑에 빠진 사실을 알았던 아내 릴리는 자살까지 시도했었고 이러한 드뷔시의 사생활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그를 떠나기도 했다.

1907년 재정 후원자였던 바르닥의 삼촌 오시리스(Osiris)가 드뷔시의 문란한 사생활을 이유로 바르닥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그로인해 재정이 어려워지자 드뷔시는 7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연주여행을 강행하게 되었다. 그 후 드뷔시에게 두 가지 시련이 닥쳐오면서 그의 작곡 생애는 점점 부진한 시기로 이어졌다. 하나는 1914년에 발발한 제 1차 세계대전이었고 또 한 가지는

11) 이석원, 오희숙, 「20세기 작곡가 연구1」, 67.

그의 건강을 해치는 병세악화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드뷔시의 애국심은 더욱 강해졌고 조국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곡을 쓰는 것밖에 없다는 욕구로 이어져 그는 작품을 쓰는데 더욱 몰두하였다. 이 시기 나온 작품들이 <백과 흑으로>(En blanc et noir), <12개의 연습곡>(Douze études pour piano), <집 없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Noel des enfants qui n'ont plus de maison)등이다. 또한 드뷔시는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6개의 소나타>(six sonates pour divers instruments)를 작곡하고자 했으나 병세악화로 인해 완성하지 못하고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cello and piano), <플루트,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sonate for flute, viola, harp),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violin and piano) 3곡만을 작곡하게 되었다. 1917년 9월 드뷔시는 생 장 튀즈에서 바이올리니스트 폴레(Gaston Poulet)와 함께 직접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초연하였다. 이로써 그의 모든 음악활동은 끝이 났고 1918년 3월 25일 10년 동안 투병해오던 직장압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 2. 음악적 특징

드뷔시는 세기전환기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인상주의 음악가이다. 인상주의 미술<sup>12)</sup>과 상징주의 문학<sup>13)</sup>의 영향을 받은 인상주의 음악은 독일 낭만주의의 예술적 경향을 탈피하고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여 현대음악으로의 문을 열게 되었다.

드뷔시는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작곡과 피아노를 공부하면서 일찍이 전통적 화성법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보다 가볍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독창적인 음악

12) 명확한 형태 보다는 색채와 분위기의 인상을 중시한 미술경향이다. 빛과 그림자의 뉘앙스에 주목한다.

13) 논리적이고 지적인 내용보다 언어의 뉘앙스를 중시하는 문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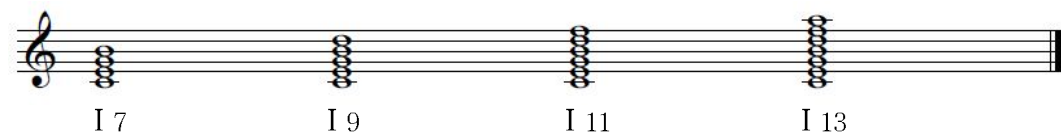
세계를 추구했다. 또한 인상주의 미술가들과 상징주의 시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 당시 기로에게 이렇게 말한바 있다.

“음조를 흐리게 함으로써 언제나 길을 돌아가지 않고도  
바라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좋아하는 문으로 드나들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드뷔시의 대표적인 음악적 특징은 형식, 화성, 음계, 리듬등에서 나타난다. 드뷔시는 틀에 박힌 전통적 형식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음악에서 명확한 주제를 전개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지 않게 새로운 요소를 첨가시키기도 하고 확대, 순환하며 자유롭게 변형시켰다.

그의 화성에는 독창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능적인 것이 아닌 순수한 색채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sup>15)</sup> 드뷔시는 3화음에 7음, 9음, 11음, 13음을 첨가하고 이러한 불협화음들을 해결시키지 않음으로써 고전, 낭만초기에 사용한 전통 화성의 원리들을 무시했다(악보1, 2, 3).

<악보1> 7, 9, 11, 13화음



14) 김원구, 서우석, 「라루스 세계음악사전」 (서울: 수문당, 1998), 226.

15)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56.

<악보2> 드뷔시 <프렐류드1>(Prelude I No.5)의 <아나카프리의 언덕>(Les collines d'Anacapri) 마디1-4

Très modéré

*pp*

Vif (♩=184)

*pp léger et lointain*

11 화음

<악보3>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0)의 <카노프>(Canope) 마디 13-15

14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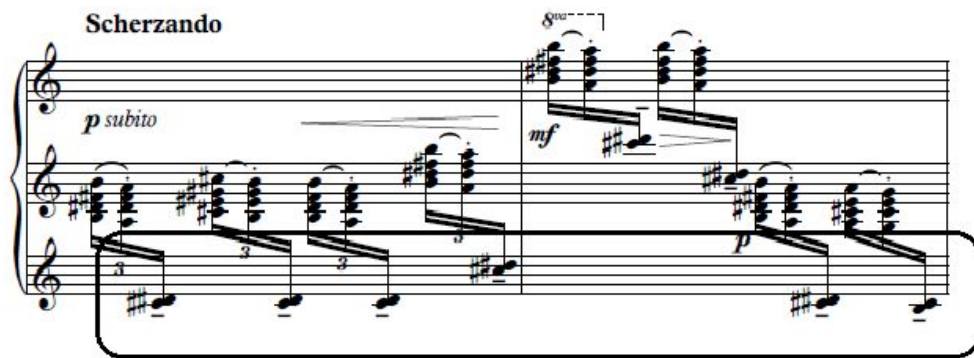
3

3

13 화음

또한 3화음 이외에 증3화음이나 2도, 4도의 구성화음 등 비전통적 화음들을 사용하였다. 2도 구성화음은 어떤 음 위에 단2도, 장2도 화음을 쌓아올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므로 송이화음(cluster chord)이라고도 한다(악보4).

<악보4>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2)의 <불꽃>(Feux d'Artifice) 마디48-49



장 2도

4도 구성화음은 어떤 음 위에 4도씩 쌓아 올린 화음으로 협화적 4화음(Consonant Quartal Chord)과 불협화적 4화음(Dissonant Quartal Chord)이 있다. 협화적 4화음은 3개, 4개, 5개음이 완전4도로 쌓아진 화음이고, 불협화적 4화음은 증4도가 한 개 또는 그 이상 포함된 화음이다(악보5, 6).

<악보5> 4도 화음

협화적 4화음                      불협화적 4화음

<악보6> 드뷔시 <에튀드1>(Etude I No.3)의 <4도를 위하여>(pour le quartes) 마디55-57

4도 화음

55 *p*

*p leggiero*

*marqué*

57 *p legg.*

*marqué*

또한 드뷔시는 전통적인 화성법에서는 금지되는 병진행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11세기에 성행했던 초기 오르가눔의 전통으로 모든 성부들이 병행으로 움직이는 진행이다. 이러한 병행4도, 병행5도, 병행7도, 병행8도등은 신비스럽고 고풍스러운 효과를 나타낸다<sup>16)</sup>(악보7, 8).

<악보7> 드뷔시 <프렐류드1>(Prelude1 No.10)의 <가라앉은 성당>(La Cathedrale Engloutie) 마디13-15

완전4도, 완전5도 병진행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Debussy's 'La Cathedrale Engloutie' (Prelude No. 10), measures 13-15. The score is written for piano (pp) and includes the instruction 'sans nuances'. A bracket above the right-hand part indicates a parallel motion of perfect fourths and perfect fifths. The right hand has an 8va marking above measure 14. The left hand has a 4va marking below measure 14.

16)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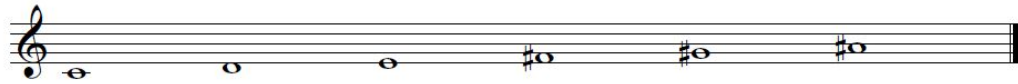
<악보8> 드뷔시 <영상1>(Image I)의 <라모를 찬양하며>(Hommage à Rameau) 마디4-6

드뷔시는 또한 장, 단조 음계가 아닌 조성 체계를 벗어난 분명하지 않은 5음음계<sup>17)</sup>, 온음음계<sup>18)</sup>, 반음계<sup>19)</sup>, 교회선법<sup>20)</sup>을 사용하였다(악보9, 10, 11, 12, 13).

<악보9> 5음음계

- 
- 17) 1옥타브 중에 5개의 음을 포함하는 음계로서 일반적으로 5도권의 처음 다섯음(C-D-E-G-A)을 순차적으로 나열한 음이다.(동양, 영국 스코틀랜드, 인도네시아 자바 음악의 기본적인 음계)
  - 18) 음계의 각 음이 반음 없이 6개의 온음(C-D-E-F#-G#-A#)으로 구성된 음계로 6음음계 라그도 한다.
  - 19) 옥타브 안에 포함되어 있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으뜸음이나 딸림음이 없기 때문에 조성감이 없어서 불확실한 느낌을 준다.
  - 20) 중세시대 종교음악에서 고대 그리스 선법을 바탕으로 사용했던 음계로 5개의 온음과 2개의 반음 패턴의 7개 음으로 구성된 음계이다.

<악보10> 온음음계



<악보11> 화성반음계



가락반음계



<악보12> 드뷔시 <에튀드1>(Etude I No.5)의 <옥타브를 위하여>(Pour les Octaves) 마디31-32

Musical notation for Exercise 12: Octaves for the Octaves (Pour les Octaves) measures 31-32. It consists of two staves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notes are: C4, C#4, D4, D#4, E4, E#4, F4, F#4, G4, G#4, A4, A#4, B4, B#4, C5. The notes are spaced evenly across the staff. The first measure is marked with a piano (*p*) dynamic and the second measure is marked with a piano (*piu f*) dynamic. A bracket below the staves indicates the range of notes from C4 to C5, labeled "반음진행".

<악보13> 교회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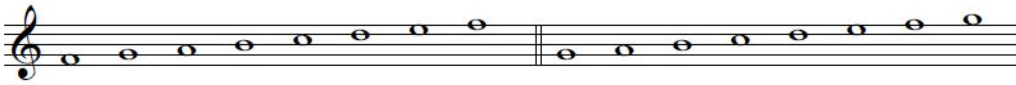
도리안 (Dorian)

프리지안 (Phryg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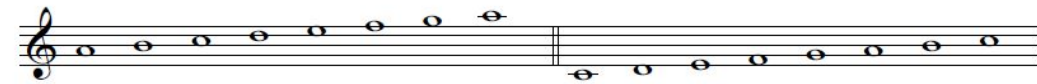
리디안 (Lydian)

믹솔리디안 (Mixolydian)



에이올리안 (Aeolian)

아이오니안 (Ionian)



리듬에 있어서도 드뷔시는 세분화된 리듬, 불규칙적인 마디의 분할과 템포, 애매한 잇단음표 등을 사용하여 당시의 강악의 리듬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악보14, 15).

<악보14> 드뷔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제 3악장 마디1-4

**Final**  
**Animé** ♩=92 *léger et nerveux* 불임줄에 의한 당김음  
 pizz. arraché arco

<악보15> 드뷔시 <프렐류드2>(Prelude II No.1)의 <안개>(Brouillards) 마디2-3

다섯잇단 음표

### Ⅲ.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 분석

#### 1. 작품배경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그의 생애 중 후기에 속하는 1915년에 작곡되었다. 당시 프랑스에는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으로 인해 독일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퍼져 있었고, 독일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과거의 프랑스의 전통을 다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sup>21)</sup>

드뷔시는 그 당시 악화된 건강과 나이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 제 1차 세계대전은 그의 음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드뷔시는 장중하고 형식적인 독일의 음악에서 벗어나 가볍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프랑스 전통의 음악으로 곡을 쓰는데 몰두하였다.<sup>22)</sup> 특히 드뷔시는 진정한 프랑스 작곡가인 라모(Jean Philippe Rameau, 1683-1764)와 쿠프랭(Francois Couperin, 1668-1733)을 종종 언급하며 라모의 부드러운 음악적 서정성과 쿠프랭의 시적이고 위트(wit)있는 매력을 존경했다.<sup>23)</sup>

이 시기 드뷔시가 전쟁에 대항하여 만들어낸 작품들로는 피아노 또는 관현악을 위한 <영웅적 자장가>(Berceuse héroïque)와 성악곡 <집 없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가 있다. <집 없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는 독일의 침략으로 집을 잃게 된 프랑스 어린이들의 이야기에 곡을 붙인 것으로 드뷔시가 1915년 가사와 곡을 만들었다.<sup>24)</sup> 그 산문시의 내용에는 드뷔시의 독일에 대

21) 진수영, "C.A. Debussy의 'Sonata pour Violon cello et Piano'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2.

22) 권유희, 「20세기 작곡가 연구 I」 (서울: 음악세계, 2000), 90.

23) Hong Sunkyoung, "A Stylistic and Technical Consideration of Debussy's Sonata for Cello and Piano" (D.M.A. diss.,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2002), 30.

24) Henry Lee Thomas, 「살아있는 전기총서7-위대한 음악가들」, 최동선 역 (서울: 종로서적, 1987), 284.

한 반감이 잘 드러난다.

“그들이 우리 집을 부숴어요. 우리 형제들을 죽였어요.  
그들이 내 인형을 망가뜨렸어요. 그들이 내 침대를 빼앗아 갔어요.  
어쩌면 좋지? 몰라.. 너는? 어디로 가야하지?  
아무 곳이나. 독일군을 떠나서 어디로든지....  
그들이 학교를 불태우고 우리 선생님을 죽였어요  
그들이 교회를 불 지르고 하나님을 죽였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애써 보여요  
노엘, 노엘, 다시는 그 나쁜 사람들의 집에 가지 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벌해 주세요.” 25)

같은 해 작곡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 <백과 흑으로>는 각각 다른 스타일을 가진 세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두 번째 곡은 프랑스 시인 비용(Francois Villon, 1431-?)의 「프랑스 적들에 대항하는 발라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전쟁에 대한 깊은 분노, 조국에 대한 애국의 열정, 프랑스의 승리에 대한 간절한 희망등이 나타나고 있다.<sup>26)</sup>

드뷔시는 전통적인 형식과 순수 음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으로 새로운 종류의 <12개의 연습곡>을 작곡하였는데 이 피아노곡 역시 1915년에 작곡하였고 초기 작품에 비해 객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변화무쌍하며 익살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같은 해에 그는 프랑스의 고전적인 모음곡 수인 6개에 맞추어 <다양한 악기들을 위한 6개의 소나타>를 계획하였고<sup>27)</sup> 그 중 세 곡만 완성하였는데 그 세 곡은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플룻과 비올라, 하프를 위한 소나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이다.

25) Henry Lee Thomas, 「살아있는 전기총서7-위대한 음악가들」, 284-285.

26) 진수영, “C.A.Debussy의 ‘Sonata pour Violon cello et Piano’에 관한 연구,” 14.

27) 진수영, “C.A.Debussy의 ‘Sonata pour Violon cello et Piano’에 관한 연구,” 15.

드뷔시는 이 소나타들의 표지에 “프랑스 작곡가, 클로드 드뷔시” 라고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프랑스 작곡가임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특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1915년 7-8월에 작곡되었는데, 당시 드뷔시는 편집자 자크(Jacques)에게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지만 나는 이 작품의 균형과 고전적인 형식이 마음에 든다’라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편지를 보냈다.<sup>28)</sup> 만년의 소나타 작품에서 드뷔시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했던 자유를 확장시켰다. 이는 젊었을 때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드뷔시가 어떤 화성의 규칙을 따르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의 기쁨에 따른다’는 대답을 연상하게 한다.<sup>29)</sup>

드뷔시 생애의 후기 작품들은 자유로운 음악의 표현과 함께 독일에 대해 저항하는 애국심 뿐 만 아니라 단순하고 우아한 프랑스의 고전음악으로 돌아가려는 자국의 음악가로서의 자부심이 나타난다.

## 2.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역사적 배경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1529년 당시 가톨릭교회의 많은 부정부패에 대항하여 시위했던 루터에 의해 작곡되었다. 원래 예배용으로 작곡된 이 곡은 가사에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일의 종교개혁에 많은 전투적 외침이 되었고 이후 제 1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의 울부짖음을 상징하게 되었다.<sup>30)</sup>

독일의 기자 로이터(Paul Reuter, 1816-1899)는 그의 기사 ‘음악과 개혁’에

28) Leon Vallas, Claude Debussy: His Life the Works, translated by Marie and Grace O'Brie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3), 261. 서은영, “C.Debussy의 「sonata pour violoncelle et piano」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3에서 재인용.

29) Paul Griffiths, 「Modern Music」, 박경중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3), 49.

30)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0.

서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전투의 외침’으로 작곡가들은 그 노래의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악곡의 혁명적인 정신과 전통적인 특징의 멜로디에 매료되어 왔다고 주장했다.<sup>31)</sup> 또한 깁스(Alan Gibbs)는 음악잡지 스트라드(The Strad)의 그의 논평기사에서 ‘아마 그 가사들은 치명적으로 아픈 작곡가에게 위안이 된듯하다’ 라고 말했다<sup>32)</sup>(악보16).

<악보16>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1.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2.내 힘만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하소서  
 3.이 땅에 마귀는 가이 때에 도울 새도 모란 배과 권세

5 환난에 서우 리를 구하 여 내 시 리 로 다 옛  
 내 는 지 말 고 셧 와 거 라 날 진 로 이 기 리 우로 내 친

9 원수 마귀는 이 때에 도울 새도 모란 배과 권세  
 적 과 재 물 과 영 에 와 정 명 을 써 도 모란 배과 권세

14 로 우 기 를 삼 으 니 천 하 에 누 가 당 하 라  
 다 양 활 자 누 구 라 반 드 시 이 기 리 하 로 라

31) Paul Reuter, “Music and the Reformation,” *In Four Hundred Years: Commemorative Essays on the Reformation of Dr. Martin Luther and Its Blessed Results*, edited by W.H.T. Dau (St. Louis, 1917), 240-253.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0에서 재인용.  
 32) Alan Gibbs, “Debussy’s Lutheran Side?” *Commentary in Strad Magazine* 103/1228 (Aug 1992), 684.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1에서 재인용.

독일의 작곡가들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독일의 상징으로 그들의 작품에 사용하였다.<sup>33)</sup> 드뷔시는 독일의 작곡가 마이어베어(Giacomo Meyerbeer, 1791-1864)가 그의 작품 <위그노 교도들>(Les Huguenots)<sup>34)</sup>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선율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고, 제 1차 세계대전 중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독일을 상징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sup>35)</sup> 또한 미시간 대학교의 음악학 교수인 왓킨스(Glenn Watkins, 1927-?)는 제 1차 세계대전 동안 사용된 독일의 표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Gott mit uns)<sup>36)</sup>를 참고로 드뷔시와 스트라빈스키(Igor Fyodorovich Stravinsky, 1882-1971)가 그 성가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sup>37)</sup>

드뷔시는 성가의 두 부분을 <백과 흑으로>에 인용하여 독일을 상징<sup>38)</sup>하였고 전쟁의 나팔소리와 군사들의 북 치는 리듬을 작품 안에서 강한 소리와 리듬으로 표현하였다(악보17).

33)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28.

34) 독일 작곡가 자코모 마이어베어가 작곡한 5막의 그랜드오페라. 프랑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의 영향을 없애기 위해 1572년 수천명의 프랑스 위그노들을 학살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 학살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다. 줄거리의 나머지 부분은 로마 가톨릭 교도인 발렌틴과 개신교도인 라울과의 사랑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35)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0.

36)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사들의 현대 버클마다 새겨져 있었다. 독일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을 담은 표어이다.

37) Glenn Watkins, *Proof Through the Night: Music and the Great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94.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1에서 재인용.

38) Glenn Watkins, *Proof Through the Night: Music and the Great W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92.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33에서 재인용.

<악보17> 드뷔시 <백과 흑으로>의 <제 2곡 Lent. Sombre> 마디79-88

79

Piano I

*lourd*

*p poco marcato*

83

*pp*

*p poco*

87

*marcato*

*rude*

이처럼 드뷔시는 그의 <백과 흑으로>에 이 성가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같은 해에 작곡한 첼로 소나타에도 그 성가를 추상적으로 설정하여 인용하였다.<sup>39)</sup>

이 성가를 작품에 사용한 것은 드뷔시가 처음이 아니다. 종교적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의 <칸타타 제 80번>(BWV 80 “Ein’ feste Burg”)의 오프닝에서 이 성가가 나오며 멘델스존(Jakob Ludwig Felix Mendelssohn, 1809-1847)의 교향곡 <종교개혁>(Symphony No.5 in D Major op.107 “Reformation”) 제 4악장에도 이 성가가 사용된다.

---

39)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29.

### 3. 작품분석

전체 3악장으로 구성된 이 곡은 제 1악장을 연주한 후 제 2, 3악장을 쉬지 않고 이어서 연주하도록 작곡되었다. 곡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1).

<표1>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의 구성

구분	형식	조성	빠르기	박자
제 1악장 (Prologue)	변형된 소나타 형식	d minor	Lent(느리게) ♩ = 48-54	4/4
제 2악장 (Sérénade)	3부형식 (A-B-A')	일정한 조성이나 음계가 없음	Modérément animé(보통빠르게) ♩ = 72	4/4→3/8 →4/4
제 3악장 (Final)	3부형식 (A-B-A')	d minor	Animé(활기있게) ♩ = 92	2/4

드뷔시는 이 작품 안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첫 번째 악절을 깨뜨려서 그 조각을 발전시킨다. 그는 깨뜨린 6개의 모티브를 첼로 소나타 사이사이에 인용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성가를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도록 모티브를 섞어서 인용하기도 하였다<sup>40</sup>(악보18).

<악보18>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분리된 동기들<sup>41</sup>)

motive① : 세 번 반복된 음



motive② : 4도 관계 음



motive③ : 상승하는 음



40)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49.

41)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49-50.

motive④ : 회전하는 음



motive⑤ : 하강하는 음



motive⑥ : 3도 도약과 순차 음



## 1) 제 1악장 : Prologue

총 51마디로 작곡된 제 1악장은 느리고 자유로우며 일반적인 소나타 형식보다 많이 축소된 악장이다. 이 악장은 느리게(Lento) 시작하여 생기있게 움직임을 가지고(poco animando), 속도를 늦추어(retenu), 점점 느리게(cédez), 생기 있고 점점 성급하게(animando poco a poco), 광범위하게 풀어서(largement déclamé), 빠르고 흥분되게(en serrant)등 여러 지시어를 사용함으로 빠르기와 분위기의 변화가 세밀하게 나타난다. 또한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같은 조인 d단조로 조성의 대비가 없고 연결구가 생략된 변형된 소나타 형식이다. 제 1악장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2).

<표 2> 제 1악장의 구성

구분	형식	마디	조성
제시부(A)	a	1-7 (제 1주제)	d
	b	8-15 (제 2주제)	
발전부(B)	c	16-20	d - F - d
	d	21-28	
재현부(A')	a'	29-38	c - d
	b'	39-44	c - d
Coda		45-51	d

(1) 제시부

제시부는 마디1-15로 제 1주제와 제 2주제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제 1주제는 마디1-7로 주제선율이 피아노에서 먼저 느리게 시작된다. 이때 악보에 주어진 지시어대로 음의 길이를 충분히 누르고 매우 힘차고 분명하게 (*sostenuto e molto risoluto*)연주한다. 제 1주제는 피아노 파트의 마디1-2의 좁은 음역이 마디3-4에서 조금 확대되면서 마디4에서 첼로가 받아서 폭넓게 도약하며 자유롭게 변형, 발전된다. 피아노의 왼손 마디1-2에서는 전통화성학에서 쓰지 않는 병행5도를 사용하였다(악보19).

<악보19> 제 1악장 마디1-4<sup>42)</sup>

1 **Lent** ♩ = 48-54 *sostenuto e molto risoluto*

병행5도

42) Achille Claude Debussy, *Sonata für Violoncello und Klavier* (München: G. Henle Verlag), 1-15, 본 논문에서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의 악보의 출처는 모두 동일하며, 이후 각 주를 생략한다.

드뷔시는 제시부의 마디1에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첫 소절을 조성, 선율, 리듬을 변형시켜 인용하였다. 그는 성가를 F장조로 선택하였고 이 성가의 처음 음(F)을 코드 3음으로 하기 위해 첼로 소나타를 d단조로 하였다. 드뷔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마디3-6의 선율 C-D-E-F-E-D-C를 첼로소나타 제시부 마디1에 사용하였는데 성가의 선율 사이에 D음을 첨가하고 리듬을 다양하게 변형시켜 성가가 인용된 것이 바로 인식되지 않도록 작곡하였다<sup>43)</sup>(악보20, 21).

<악보20> <내 주는 강한 성이요> F장조



<악보21> 제 1악장 마디1

The image shows the first measure of the first movement of Debussy's Cello Sonata. It consists of three staves: a bass staff, a treble staff, and a lower bass staff. The treble staff contains the main melody, which is a variation of the hymn '내 주는 강한 성이요'. A box highlights a specific phrase of the melody, and an arrow points to it from the label 'D음 첨가' (D note addition) below. To the right of the treble staff, the text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제선을 변형' (Transformation of the main theme of '내 주는 강한 성이요') is written. The first measure is marked with a '1' above the bass staff.

43)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94.

제 2주제는 마디8-15로 제 1주제보다 서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움직임을 가지고 생기 있게 앞으로 좀 더 나아가듯이 연주한다. 피아노는 마디8-9에서 반음으로 진행하고 마디10-11에서 장3화음과 단3화음이 교대로 연결되는데 마디8의 마지막 음에 증6화음을 사용함으로써 인상주의 음악의 색채와 드뷔시의 화성의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마디8-9에서 첼로 라인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motive⑥인 선율 A-F-E를 정확하게 C장조 안에 있는 원래의 음으로 리듬만 변형시켜 인용하였다. 마디10에서는 성가의 motive①의 연속하는 세음을 뻗 G-A-B-C-B-A-G을 B $\flat$ -C-D-E-D-C-B $\flat$ 으로 쓰고 리듬은 마디1에서 변형시킨 것과 다르게 작곡하였다<sup>44</sup>(악보22).

<악보22> 제 1악장 마디8-11

44)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99.

마디12-13의 첼로 선율은 마디8-9의 첼로 선율을 변형시켜 반복하였고 피아노는 마디8-9에서 d단조의 반음으로 진행하지만 마디12의 첫 박에 F장조 화성을 넣어 밝은 느낌의 음색 변화를 준다. 마디13의 첼로 선율에는 드뷔시가 자주 사용했던 온음음계(A b-B b -C-D-E)가 나타난다.

마디14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motive⑥의 선율(A-F-E)이 첼로에 한번 더 나타나면서 마디15로 이어져 d단조 변격종지로 마무리한다. 레그노는 제시부의 조성인 d단조는 프랑스를 상징하고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독일을 상징하는데 이 성가를 전체 인용하지 않고 모티브를 분리해서 사용한 것은 독일의 분열을 나타낸 것이고 제시부의 종지를 d단조로 한 것은 프랑스의 승리의 조짐을 보여준다고 추측하였다<sup>45)</sup>(악보23).

<악보23> 제 1악장 마디12-15

45)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99.

(2) 발전부

발전부는 마디16-20까지인 c부분과 마디21-28까지인 d부분으로 나뉘며 제시부와 대조되는 성격으로 주제가 발전된다. 또한 빠르기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격동적이면서도 활발하며 지시어들과 악상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된다. c부분인 마디16에서는 첼로의 선율이 C음과 C#음으로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잣은 셈여림의 변화로 색채감을 더해주며, 마디16-17은 마디18-19에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악보24).

<악보24> 제 1악장 마디16-19

마디16-17 변형반복

16 *au mouvt*  
*p* < *p* < *p* < *p* < *mf*<sup>3</sup> *dim.* *p* < *p* < *p* < *p* < *mf*<sup>3</sup> *f*

*au mouvt*  
*p* *p* *mf* *p* *p* *mf* *f*

c부분이 첼로가 음악을 이끌어갔다면 d부분은 피아노가 발전되어 음악을 이끌어 간다. 마디21에 피아노는 생동감 있게 점점 서두르듯이(animando poco a poco agitato)라는 지시어대로 32분음표가 분산된 형태로 반복되어 서두르는 느낌을 주며 움직인다. 드뷔시는 프랑스 고전시대에 많이 사용하였던 분산음형을 사용함으로 프랑스 고전적 성향을 나타내고자 했다.<sup>46)</sup>

첼로에는 마디20부터 마디28의 첫 음까지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motive⑥의 3도 도약과 순차 선율인 C-A-G이 오스티나토(ostinato)로 나타나는 데 이 음들은 5음음계의 성격을 가지며, 첼로의 연속적인 당김음은 기본 박절감을 모호하게 하고 점점 빨라지는 느낌을 갖게 한다. 마디24부터는 피아노가 장3도와 옥타브가 결합된 화음으로 병진행하고 음역이 점점 확장되어 더욱 넓어진 공간감과 음색의 효과를 준다. 마디28의 첼로는 성가의 가장 중요한 음정인 4도로 상행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선율의 최종 클라이막스인 재현부로 도입한다(악보25).

---

46) 박지연, “C.A. Debussy 의 Sonate pour Violoncello et Piano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8.

<악보25> 제 1악장 마디21-29

motive⑥ 변형선율 C-A-G의 오스티나토

21 *animando poco a poco agitato*  
*sur la touche*

*pp* *animando poco a poco agitato*

23 *pp* *pp sempre animando e crescendo*  
*sempre animando e crescendo*  
*pp ma sostenuto*

↑ 장3도와 옥타브 병진행

26 4도 상행후 재현부로 도입

*position ordinaire* *au mouvt largement déclamé*  
*molto cresc.* *f molto sostenuto*  
*au mouvt largement déclamé*  
*molto cresc.* *f* *mf*

### (3) 재현부

재현부는 제시부의 제 1주제와 제 2주제가 확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며 마디29-38까지인 a'와 마디39-44까지인 b'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시부의 제 1주제였던 피아노 파트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변주 선율이 마디29 첼로 선율에서 완전 5도 위로 나타나고 마디33에는 다시 제시부의 제 1주제와 같은 조로 변형되어 옥타브 아래로 모방되어 나타난다. 마디29-32의 피아노에는 C-D-(E)-G-A로 구성된 5음음계가 나타나면서 인상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마디31에서 첼로는 세 번 반복된 음들인 성가의 motive①의 장식변주를 보여준다. 또한 조성적 갈등이 계속 나타나는데 마디29, 31, 32의 피아노 첫박은 3도가 없는 C화음, 두 번째 박은 C의 세 옥타브와 함께 D의 세 옥타브, 네번째 박은 d단조 화음이다. 마디32에서 네 번째 박은 명확하게 d단조로 해결되지 않고 마디33에서 F장조로 바뀌고 첼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변형된 제 1주제선율을 이끌어 간다. 성가를 나타내는 C, F장조와 프랑스를 나타내는 d단조의 이러한 진행은 독일과 프랑스가 대립하는 중 독일의 임시적인 승리를 나타낸다고 레그노는 추측하였다<sup>47)</sup>(악보26).

---

47)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03.

<악보26> 제 1악장 마디29-33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변형선율

5음음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변형선율

C화음    C,D음의 대립    d단조 화음

마디35-38은 제 2주제의 재현을 위한 연결구로 드뷔시는 마디35에서 독일과 프랑스를 각각 C장화음과 d단화음으로 상징하기 위해 C, E, G, D, A의 음들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서도 피아노와 첼로의 3:2리듬과 C장조 조성인 C-E-G과 d단조 조성인 D-A음들의 혼합은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을 나타내는데, d단조는 3음이 빠져있으므로 C장조가 상징하는 독일이 승리하고 있다고 레그노는 추측하였다.<sup>48)</sup>

마디37-38에서 첼로가 32분음표의 짧은 음가로 분할되고 마디38에는 더욱 빠르고 흥분되게 진행되다가 다시 속도를 늦추어 해결하면서 제 2주제가 재현된다(악보27).

<악보27> 제 1악장 마디35-39

C-E-G / D-A 음들의 혼합(독일과 프랑스의 대립관계)

35 *rubato* 3 3 3 3 *più p lusingando* *rubato* *pp* 3 3

37 *quasi cadenza* *p* *p* *molto dim.* *en serrant* - - - // *retenu* - - - - //

39 *au mouvt poco animando* *dolce sostenuto* → 제 2주제 재현 *pp*

48)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04.

마디39-42인 b'는 제시부 제 2주제의 변형 반복으로 제시부의 b부분과 같다. 마디43-44는 마디39-40이 느리게의 빠르기로 변화된 것으로 반복하면서 코다(coda)로 이어진다(악보28).

<악보28> 제 1악장 마디39-44

제 2주제 변형

39 *au mouvt poco animando*  
*dolce sostenuto*  
*au mouvt poco animando*  
*pp*

*più dolce*

*più dolce*

*lento*

*più p*  
*lento*  
*pp*



## 2) 제 2악장 : Sérénade

제 2악장은 생기가 느껴지는 보통빠르기(Modérément animé)의 템포로 A-B-A'인 3부분 형식으로 나뉜다. 제 1악장은 서정적인데 비해 제 2악장은 선율적인 흐름보다 다양한 리듬, 반복음, 잦은 템포변화와 스타카토(staccato)의 빠른 움직임 등으로 이루어져 역동적이고 재치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첼로에 여러가지 연주기법들을 사용하여 음색과 음향의 변화를 주어 드뷔시의 자유로운 음악을 잘 표현하였다. 제 2악장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3).

<표3> 제 2악장의 구성

구분	형식	마디	구성
제 1부분(A)	a	1-11	d
	b	12-18	
	a'	19-27	
연결구		28-30	
제 2부분(B)		31-53	A
제 3부분(A')	a'	54-58	d
coda		59-64	

(1) 제 1부분(A)

제 1부분은 a, b, a'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a는 마디1-11까지로 마디1은 첼로의 피치카토(pizzicato)로 시작하고 반음계로 진행한다. 마디2에서는 마디1의 첼로선율이 세분화되어 반복하고 마디3-4에서는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여러 모티브들이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3의 첼로선율에는 motive③의 C-D-E-F가 리듬이 변형되어 나타나고 계속해서 첼로 마디3-4에 걸쳐 motive②가 완전4도 도약하는 대신에 3온음으로 변형되어 반음씩 상행하면서 나타난다. 마디3-4에 피아노는 B $\flat$ -A-B $\flat$ -C $\flat$ -B $\flat$ 으로 반음씩 회전하는 motive④를 음정을 변형시켜 인용하고 이어서 마디5에서 첼로는 회전하는 motive④의 E-F-E를 그대로 인용한다(악보30).

<악보30> 제 2악장 마디1-5

마디12-18은 b부분으로 마디12부터 피아노에 D-E-F $\sharp$ -G $\sharp$ 의 온음음계가 나타나고 마디15부터는 온음음계가 옥타브 위로 나타난다. 이것은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motive②인 C-G의 4도와 motive③인 G-A-B-C의 상행하는 선율이 합쳐져서 음정의 관계가 온음으로 변형되어 사용된 것이다.

마디12-13은 첼로가 반음계로 시작하고 잣은 당김음을 사용하여 피아노의 온음음계의 색채와 함께 마치 비꼬는(ironique)듯한 느낌을 준다. 마디15에서 피아노의 왼손은 A#-E의 증4도로 진행하고 마디17의 첼로에 온음음계가 다시 나와 인상주의 음악의 색채를 더해준다. 마디18에서는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조성인 C장조를 써서 독일의 강함을 상징한다<sup>49)</sup>(악보31).

<악보31> 제 2악장 마디12-18

49)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72.

마디19-22는 a'로 a부분의 마디3-6을 그대로 반복한다. 마디23-25에서 첼로는 피치카토, 아르코(arco)의 대조와 글리산도(glissando)를 사용하여 새로운 음색을 나타내고 리듬과 셈여림의 잦은 변화가 나타난다. 마디23에서 피아노의 오른손 화성에는 D-Gb의 증5도, 왼손 선율에는 Ab-D의 감5도가 나오며 마디26-27은 a부분의 마디10-11을 변형시켜서 반복한다. 레그노는 마디25에서 피아노가 C장조의 G도미넌트 7화음을 나타냄으로 한번 더 독일의 강함을 나타낸다고 추측하였다<sup>50)</sup>(악보32).

---

50)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77.

<악보32> 제 2악장 마디19-27

마디3-6 반복

19 *mouvt*  
*pizz.*  
*pp* *p* *p* *p*

22 *p* *p* *p* *mf* *p* *p* *p* *mf*  
*cédez* // *cédez* //  
*cédez* // *cédez* //  
증5도  
감5도

마디10-11 변형반복

25 *fuoco* *arco* *cédez* 3 // *mouvt* *pizz.* *cédez* - //  
*f* *pp* *molto*  
*fuoco* *cédez* // *mouvt* *cédez* - //  
*pp*  
C: V7

마디28-30은 제 2부분(B)으로 가기 위한 연결구로 첼로가 C음을 중심으로 장2도와 단2도를 번갈아 가며 반복하여 나타나고 점점 앞으로 진행되는 듯한 리듬에 템포의 변화를 주며 자연스럽게 제 2부분으로 연결한다. 이 때 마디28-29에 걸쳐 첼로의 C음들은 성가의 motive①인 반복음 C-C-C의 장식변주로 볼 수 있다(악보33).

<악보33> 제 2악장 마디28-30

motive ① 장식변주 장2도와 단2도 반복

28 *p mouvt* *accel. poco a poco* *crescendo* *accel. poco a poco*

*pp très serré* *crescendo*

30 *f* *dim.* *p* *molto rit.* //

*sfz* *molto rit.* //

제 2부분(B)은 마디31-53으로 제 1부분과 달리 박자는 3/8으로 빠르고 생기있으며(vivace) 첼로와 피아노의 리듬이 박자 안에서 가볍고 경쾌하게 흘러간다.

마디31-32의 첼로 선율은 마디28-29의 첼로선율에 제시되었던 음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는 제 2악장의 안정적이며 간결한 구조를 보여준다<sup>51)</sup>(악보 34).

<악보34> 제 2악장 마디31-32

31 **Vivace** la ♩ = ♪ du mouvt précédent

*pp leggierissimo* 3

51) 고은아, “드뷔시 음악에 관한 분석 연구-첼로 소나타를 중심으로,” 36.

마디37부터는 첼로가 반음으로 진행되는데 마디37-38에서는 회전하는 motive④인 B-C-B의 음을 바꾸고 연속하는 음들과 셋잇단음표로 첨가하여 인용한다. 마디39-40에서는 motive⑥인 3도 도약과 순차진행을 거꾸로 순차 진행한 뒤 3도 도약하고 셋잇단음표 음들을 추가하여 인용한다. 이때 피아노 오른손은 마디37-38에서는 장3화음으로, 마디39-40에서는 장3화음의 제 2전위 형태의 병진행을 보인다. 이러한 병진행은 반음계로 움직이고 왼손은 오른손과 반진행하면서 모호한 화성의 색채감을 보여준다(악보35).

<악보35> 제 2악장 마디37-40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37-40.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top system is for the cello, and the bottom system is for the piano. The key signature is two sharps (F# and C#), and the time signature is 3/4. The tempo is marked 'meno mosso poco'. The dynamics are 'pp subito' for measures 37-38 and 'p' for measures 39-40. The score is annotated with 'motive ④' and 'motive ⑥' with arrows pointing to specific notes. The piano part shows a parallel motion of triads in the right hand, with the left hand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Korean text '반진행' (antiparallel motion) is written at the bottom left and right of the piano part.

마디44-45의 첼로 선율은 마디46-47에서 반복되고 피아노 왼손은 E-B $\flat$ 의 중4도로 움직이며 계속되는 첼로의 셋잇단음표와 붓점리듬은 경쾌한 율동감을 준다. 마디48-49에서 첼로의 높은음은 플라우탄도(flautando)<sup>52</sup>로 연주하고 낮은음은 피치카토 주법을 사용하여 음색의 대조를 보이고 마디50-51에서 반복한다(악보36).

<악보36> 제 2악장 마디44-5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44-47, with a bracket indicating a repeat from measure 44 to 55. The cello part starts at measure 44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marked 'rubato sur la touche' and 'p'.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left hand, marked 'p', with an annotation '중4도' (interval of a fourth) pointing to the interval between the notes.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48-51, with a bracket indicating a repeat from measure 48 to 49. The cello part is marked 'presque lent flautando' and 'pizz.' (pizzicato), with a triplet of eighth notes circled. The piano accompaniment is marked 'p dolce' and 'pp'.

52) '플룻처럼' 이란 뜻으로 현악기에서 활을 지판 가까이에서 사용하여 플룻의 음색과 비슷한 부드러운 음색으로 연주.

제 3부분은(A')은 마디54-58으로 마디54-55는 제 1부분(A)의 첼로 마디 3-4를 그대로 반복한다. 마디56-57은 마디5-6을 변형시켜 반복하는데 마디 5-6은 첼로가 피치카토로 연주하지만 마디56-57은 화음을 뺀 선율만 첼로가 아르코로 연주하고 지판에 가깝게(sur la touche)와 글리산도의 연주기법을 사용한다. 피아노에서도 마디5-6은 선율적이지만 마디56-57은 9화음을 병진하여 화성적으로 진행한다. 마디58에서 피아노는 Bb-C-D-E-F#-Ab (G#)인 온음계로, 첼로는 반음계로 진행하고 점점커지며 속도를 더해(stretto e cresc. molto) 몰아간다(악보37).

<악보37> 제 2악장 마디54-58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54-58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top system is for the Cello (bass clef) and the bottom system is for the Piano (treble and bass clefs). The score is in 4/4 time and marked '1er mouvt'. Annotations above the staff include '마디3-4반복' (Measures 3-4 repeat), '마디5-6 변형반복' (Measures 5-6 modified repeat), and '반음진행' (Semi-tone progression). Dynamics include *pp*, *p*, *piu p*, and *pp stretto e cresc. molto*.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sur la touche' and '9화음 병진행' (9th harmonic progression). A downward arrow points to the piano part with the label '온음음계' (Whole-tone scale).



### 3) 제 3악장 : Final

이 악장은 앞의 제 1, 2악장과 마찬가지로 빠르기 변화가 많고 A-B-A' 형식으로 구분된다. 이 3부분 형식은 각 부분마다 선율이 반복되어 나타남으로 론도(Rondo)의 형식과 유사하다. 제 2악장 끝에 중단 없이 피날레로 이어서 연주(attacca subito il Finale) 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 2악장에 이어 쉬지 않고 바로 연주한다. 제 3악장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표4).

<표4> 제 3악장의 구성

구분	형식	마디	조성
제 1부분(A)	a	1-14	d
	b	15-22	D
	c	23-36	f#
제 2부분(B)	a'	37-44	C
	d	45-56	d
	e	57-68	b $\flat$
	f	69-84	f#
제 3부분(A')	a	85-95	d
	b'	96-103	d
	d'	104-114	d
코다		115-123	d

드뷔시는 이 악장에서 프랑스 국가인 <마르세유의 노래>의 주제선율을 조각으로 나누거나 감추어서 인용하였다(악보39).

<악보39>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French national anthem 'Marseillaise' by Debussy. The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begins with a forte (*f*) dynamic and contains a circled section of the melody. The second staff starts at measure 6, marked with a *cresc.* (crescendo) and *ff* (fortissimo) dynamic. The third staff starts at measure 11, marked with a *p* (piano) dynamic. The fourth staff starts at measure 17, marked with a *ff* dynamic. The fifth staff starts at measure 23, also marked with a *ff* dynamic. The score concludes with a double bar line.

(1) 제 1부분(A)

마디1-14는 a부분으로 나뉘고 생동감 있게(animé) 경쾌하고 규칙적으로(léger et nerveux)연주한다. 마디1-2는 첼로의 피치카토와 피아노 베이스음의 스타카토와 5도 병진행으로 진행되는데 피아노 오른손의 셋잇단음표의 불임줄에 의해 생긴 당김음은 기본 박절감을 무너뜨린다.<sup>53)</sup>

마디3, 5에서 <마르세유의 노래>선율인 E-A-A-B-B-E-C#-A의 제일 앞 소절 E-A의 4도 도약이 첼로 선율에 거꾸로 나타난다. 두 번째 조각은 마디6, 7에 인용되었는데 첼로는 E-A-E-A 음을 가지고 상승하고 <마르세유의 노래>의 선율 E-A-A-B-B-E-C#-A에서 B음과 C#음을 피아노의 왼손 윗성부에 넣어서 선율조각이 드러나지 않게 작곡하였다.<sup>54)</sup>

마디7-9의 첼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motive⑥을 반대로 상행하여 변형시켜 나타냄으로 독일이 떠나고 프랑스와 떨어진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sup>55)</sup>(악보40).

---

53) 고은아, “드뷔시 음악에 관한 분석 연구: 첼로 소나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0.

54)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07.

55)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07.

<악보40> 제 3악장 마디1-8

**Final**  
**Animé** ♩=92 *léger et nerveux*

<마르세유의 노래> 컷소절B-A의  
 4도 도약을 역으로 인용

pizz. arraché

*p*

5

motive ⑥ 상행하여 인용

*p* *pressif et soutenu*

<마르세유의 노래> 선율을  
 첼로와 피아노에 분리하여 인용

마디15-22는 b부분으로 피아노의 셋잇단음표와 당김음은 마디18까지 계속 되고 a부분과 달리 조성이 D장조로 바뀌면서 분위기가 밝아진다. 마디15의 첼로선율은 마디16에서 역행구도로 나오고 마디15-18까지 경쾌한 리듬의 첼로선율에 E도리안 선법<sup>56)</sup>을 사용하였다. 마디19에서 피아노가 다시 그 선율을 받아 반복한다(악보41).

<악보41> 제 3악장 마디15-20

선율의 역행구도

E도리안 선법

56) E-F#-G-A-B-C#-D-E

c부분은 마디15-36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던 b부분과 다르게 느리고 자유로운(rubato) 템포로 갑자기 변하면서 피아노와 첼로가 모두 부드럽게, 음표를 충분히 유지하여(dolce sostenuto) 연주한다. 마디27에서는 조금 긴박하게 당겼다가(poco stretto) 마디28 두 번째 박에서 다시 풀어주어 긴장과 이완의 대비를 주고 마디29-34의 첼로는 마디23-28의 첼로 선율을 완전 4도 위로 올려 변형시켜 반복하였다(악보42).

<악보42> 제 3악장 마디23-36

23 *rubato* *ten.*  
*p dolce sostenuto rubato*  
*p marqué* *p*  
*p dolce sostenuto*  
*m.g.* *m.g.*

마디23-28 완전4도 위로 변형 반복

27 *poco stretto* - - - *cédez* - // *rubato* *ten.*  
*poco stretto* - - - *cédez* - // *rubato* *p*

31

*ten. poco a poco stretto*

*p* *sf*

*poco a poco stretto*

34

*p* *sf* *f* *3*

*rubato arco* - - - - //

*rubato* - - - - //

(2) 제 2부분(B)

제 2부분은 a', d, e, f 네 부분으로 나뉜다. a'는 마디37-44이며 그 중 마디39-43은 제 1부분 a의 마디3-6의 선율이 장2도 아래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때 마디39의 첼로는 브릿지 가까이에서 연주(sur le chevalet)하여 꺼끌꺼끌한 굵는 소리를 표현한다(악보43).

<악보43> 제 3악장 마디37-44

마디3-6 장2도 아래로 변형

37 *1er mouvt*  
*p*  
*dim. molto*  
*1er mouvt*  
*f*  
*p subito e dim. molto*  
*pp*  
*sur le chevalet*  
*pp*

41  
*p espress*  
*crescendo*  
*cède*  
*p*  
*crescendo*  
*cède*

마디45-56은 d부분으로 마디45-48은 피아노 왼손의 완전8도 병진행과 오른손의 셋잇단음표의 붙임줄에 의한 당김음 위에 첼로가 선율을 이끌어난다. 마디49는 첼로가 반음으로 진행하고 마디51-52는 마디49-50을 온음 올려서 반복한다(악보44).

<악보44> 제 3악장 마디45-5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45-52.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measures 45-48) includes a cello part (top staff) and a piano part (bottom two staves). The cello part is marked with *con fuoco ed appassionato* and *p sostenuto*. The piano part is marked with *p* and *più p*. A bracket under the piano part is labeled '병행8도'. The second system (measures 49-52) also includes a cello part and a piano part. The cello part is marked with *sempre p* and *molto*. The piano part is marked with *sempre p* and *molto*.

e부분은 마디57-68로 나뉘고 느리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루바토하여(Lento, molto rubato con morbidezza)의 지시어대로 느리고 자유롭게 연주한다. 이 부분은 유난히 지시어들이 많은데 피아노 왼손은 셋잇단음표의 아르페지오 형태의 오스티나토로 진행하고 오른손은 장3화음이 제 1전위된 형태의 병진행이 나타나는데 매우 부드럽고 다정하게(molto dolce, lusingando) 연주한다. 첼로는 반음진행으로 움직이며 매우 부드럽고 음의 길이를 충분히 하여(dolcissimo ma sostenuto) 연주하고 마디62에서 반음진행도 보다 섬세하고 우아하게(delicatissimo) 연주한다(악보45).

<악보45> 제 3악장 마디57-62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57-62) features a piano part in the upper staff and a cello part in the lower staff. The piano part includes performance instructions: *lento, molto rubato con morbidezza* at the beginning, *pp dolcissimo ma sostenuto* for the first two measures, *1전위된 장3화음의 병진행* (Progression of a major triad in its first inversion) for measures 3-6, and *delicatissimo* for the final measure. The piano part also contains two triplet markings. The cello part includes the instruction *pp molto dolce, lusingando* and features a continuous half-note chromatic descent. The second system (measures 63-68) features a piano part in the upper staff and a cello part in the lower staff. The piano part includes the instruction *lento, molto rubato* and contains a triplet marking. The cello part continues with a half-note chromatic descent.

f부분은 마디69-84까지로 제 3부분으로 가는 연결구 역할을 하며 첼로는 반복음이 5도 간격으로 도약하며 지판위의 부드러운 음색으로 연주한다. 앞부분의 부드럽고 다정한 분위기와 다르게 처음의 빠르기로 돌아가서 빠르게 연주하며 마디71-72의 첼로선율은 마디77-78의 피아노선율에 나타난다. 이어서 첼로가 마디79-80에서 그 선율을 다시 받고 마디81부터는 f#음만 옥타브로 도약하면서 나타나는데 그때 마디82의 피아노는 온음계 선율이 나와 색채감을 더해준다(악보46, 47).

<악보46> 제 3악장 마디69-72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69-72. The top staff is for the cello, starting at measure 69 with the instruction "1er mouvt sur la touche" and a dynamic marking of "pp". It features a triplet of eighth notes followed by a series of eighth notes. The bottom staff is for the piano, also starting at measure 69 with "1er mouvt" and "pp". It shows a sparse accompaniment with some chords and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악보47> 제 3악장 마디77-83

77 sur le chevalet  
*crescendo*  
*mf* *non diminuendo*  
 마디71-72 반복

80  
*f* *sf* *sf* *molto dim.* *p*  
*molto dim.* *p*  
 은음음계

(3) 제 3부분(A')

제 3부분은 마디85-114까지이며 a, b', d' 세 부분으로 나뉜다. 마디85-95는 a부분으로 마디85-86에서 두 마디의 첼로가 셋잇단음표로 변형된 것 외에 제 1부분의 a가 그대로 재현된다. 마디85-86의 첼로는 서로 대조적인 연주기법인 피치카토와 아르코를 번갈아 사용하여 음색의 대조를 준다(악보 48).

<악보48> 제 3악장 마디85-86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85-86. The top staff is for the cello, and the bottom two staves are for the piano. The cello part starts with a *pizz.* marking and a *pp* dynamic. It then alternates between *pizz.* and *arco* markings. The piano accompaniment starts with a *pp* dynamic and a *molto* tempo marking. The score includes various musical notations such as slurs, accents, and dynamic markings.

b'는 마디96-103으로 제 1부분 b가 변형되어 반복하는데 마디19-22와 다르게 마디100에서 첼로가 트릴로 연주하고 피아노는 옥타브 아래음역에서 단2도 높여서 재현된다(악보49).

<악보49> 제 3악장 마디100-103

제 1부분 마디19-22 변형반복

d'는 마디104-114로 제 2부분 d가 변형되어 나타난다. 마디104-105는 마디 49-50이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첼로는 장3도 올라가 반복하고 피아노는 왼손이 3도 병진행하고 오른손은 셋잇단음표가 펼쳐진 형태로 변형된다. 마디 108-109는 마디55-56이 똑같이 재현된다.

마디112-114는 피아노의 d단조와 첼로의 C장조 도미넌트인 G7화음이 강하게 번갈아 주고받는다(악보51).

<악보50> 제 3악장 마디104-114

마디49-50 변형반복

104 *passionato ed animando*  
*p* *soseuto* *P* *p*  
*passionato ed animando*

108 *mf*

111 *molto*

*pizz.* *sff* *sff* *sff* *arco* *largo la moitié plus lent*  
*sff* *sff* *sff* *sec* *à plein son*

코다는 마디115에서 첼로 독주로 시작하는데 최대한 짹 찬 소리로(à plein son) 폭넓고 보다 더 느리게(largo la moitié plus lent), 그리고 마치 첼로의 카덴차(cadenza)처럼 연주한다. 마디115에서 첼로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motive①인 연속된 세음의 장식된 변주로 시작하지만, 그 후에 이 성가의 모든 motive는 사라지고 순수한 d단조 코드와 아주 짧고 강한 D음이 강조되면서 끝을 맺는다. 이로써 드뷔시는 이 작품의 마지막에서 조국 프랑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였다<sup>57)</sup>(악보51).

<악보51> 제 3악장 마디114-123

motive ① 장식변주

D단조

57)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 (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111.

#### IV. 결론

드뷔시의 마지막 작품인 3개의 소나타 중 첫 번째 곡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는 매우 자유롭고 환상적인 작품이다.<sup>58)</sup> 이 곡은 그가 남긴 유일한 첼로 소나타로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선율이 인용되어있으며 인상주의적 작곡기법들이 잘 나타나있다.

드뷔시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당시 독일에 대한 저항을 음악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그의 애국심으로 작곡되었다. 전체 3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Prologue, Sérénade, Final의 부제를 가지고 있다. 제 1악장은 변형된 소나타 형식을 사용하고 제 2악장과 제 3악장은 아타카로 중단 없이 이어서 연주하여 마치 2개의 악장처럼 보여진다.

드뷔시는 이 작품에서 5음음계, 온음음계, 반음계, 교회선법들을 사용하여 조성의 모호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화성에서 금지하고 있는 병행5도, 병행8도의 사용과 3화음 외에 7, 9, 11화음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화음 외에 음들을 첨가하거나 생략시켜 순간적인 분위기나 인상주의의 색채적인 요소를 나타내었다. 또한 셋잇단음표, 잣은 당김음, 세밀하고 다양한 리듬과 오스티나토를 사용하고 리듬의 분할과 연결을 통하여 기본 박자를 모호하게 하였다.

드뷔시는 독일의 성직자 루터의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의 주제 선율을 6개의 동기로 조각내어 이 소나타에 나타내었는데 조성, 리듬, 선율을 변형시키고, 조각낸 동기선율에 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성가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도록 인용하였다.<sup>59)</sup> 또한 성가의 조성인 C장조, 드뷔시가 이 소나

58) 김원구, 서우석, 「라루스 세계음악사전」, 229.

59) Janelle Suzanne Ragno,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94.

타에서 사용한 성가의 F장조, 그리고 변형되어 쓰여진 동기선율들은 이 작품 안에서 독일을 상징하고 성가 F장조와 관계조인 첼로 소나타의 조성 d단조와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는 프랑스를 상징하여 두 국가의 대립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 끝에 d단조의 조성을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결국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드뷔시는 마지막 창작의 시기까지 그의 인상주의적 음악 어법을 작품에 잘 표현하였으며, 특히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단조>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한 드뷔시의 조국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부록

다음은 본 논문에 사용된 악보를 토대로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와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가 인용된 마디를 분류한 것이다(표5).

<표5>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세유의 노래>가 인용된 마디

	제 1악장	제 2악장	제 3악장
성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주제선율 변형	마디1 마디10 마디29 마디33 마디41 마디45		
motive①	마디31	마디28	마디114-116
motive②		마디4 마디12-16	
motive③		마디3 마디12-16	
motive④		마디3-5 마디37-38	
motive⑤			
motive⑥	마디8-9 마디12-15 마디21-27 마디39-44	마디39-40	마디8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의 노래> 주제선율 변형			마디3-7

## 참고문헌

- 고은아. “드뷔시 음악에 관한 분석 연구: 첼로 소나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 2009.
- 김수미. “Debussy의 화성어법에 관한 연구: 피아노 작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원구, 서우석. 「라루스 세계음악사전」. 서울: 수문당, 1998
- 나운영. 「현대화성론-화성분석과 한국적 화성연구」. 서울: 세광출판사, 1982.
- 민은기. 「서양음악사-피타고라스부터 재즈까지」. 파주: 음악세계, 2010.
- 백병동. 「대학음악이론」.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2002.
- 백선희. “Claude Debussy의 Sonata no.1 in d minor for cello and piano 분석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서울대학교 서양음악연구소 편. 「Dictionary of music」. 서울: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1
- 서은영. “C.Debussy의 「Sonate pour violoncelle et piano」의 분석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서혜영. 「20세기의 피아노 음악」. 서울: 지음, 2003.
- 송금선. “C.Debussy 첼로 소나타 <cello sonata in d minor> 반주연구.” 성신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1999
-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 2」. 파주: (주)나남출판, 2006.
-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sup>®</sup> 드뷔시」. 서울: 음악세계, 2002.
- 이석원.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본문2」. 서울: 심설당, 2004.
- 이석원, 오희숙. 「20세기 작곡가 연구 I」. 서울: 음악세계, 2000.
- 이종구.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장근주. “드뷔시의 음악에 나타난 인상주의 화성 기법의 특징에 관한 고찰: Prelude 1 중 ‘Voiles’를 중심으로.” *新음악논집*, Vol.2 no.-, 2001.
- 조성희. “C.A.Debussy의 Children’s Corner에 관한 분석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주지혜. “C.Debussy의 「Sonata for Violoncello and Piano in d minor」의 분석적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 진수영. “C.A.Debussy의 ‘Sonata pour Violoncello et Piano’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홍지희. “C.Debussy의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Griffiths, Paul. 「Morden Music」. 박경중 역. 서울: 삼호출판사, 1993.
- John, Tyrrell. “Debussy Claude, 1. Childhood and studies”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on*. 2nd ed. ed. Stanley Sadie. London: Macmillan press, 2001.
- Ragno, Janelle Suzanne. “The Lutheran Hymn ‘Ein’ feste Burg’ in Claude Debussy’s Cello sonata(1915): Motivic Variation and structure.”  
Doctor diss.,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05.
- Schumitz, Robert. 「드뷔시 피아노 작품과 연주해석」. 김난희 역. 서울: 음악춘추사, 1995.
- Sunkyong, Hong. “A Stylistic and Technical Consideration of Debussy’s Sonata for Cello and Piano.” D.M.A. from City University of New York, Graduate Center, 2002.
- Thomas, Henry Lee. 「살아있는 전기총서7-위대한 음악가들」. 최동선 역. 서울: 종로서적, 1987.

## ABSTRACT

**Research and Analysis on Debussy's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mainly in relation with Luther's hymn 'Ein' feste Burg'**

Shin, Mi Na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is a study on Claude Achille Debussy(1862-1918), a representative French Impressionist composer's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in relation with Martin Luther's (1483-1546) hymn, <Ein' feste Burg> on the basis of its historical background.

Debussy was a steppingstone from Romantic music to Contemporary music. He moved away from traditional form or chord to add or omit notes to use added not chords or discords. Moreover, by using diatonic scale, chromatic scale, church modes Debussy freely expressed the feelings and images through music rather than articulate expressions.

In 1915 due to World War I France become hostile to Germany and to revive the classics in France Debussy engaged in creating music. Debussy planned to write <Six Sonatas for Diverse Instruments>, he completed three songs and the first to be composed was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In this sonata Debussy used German priest, Martin Luther's hymn, <Ein' feste Burg> and the French national anthem <La Marseillaise>. He divided and varied the subject melody of <Ein' feste Burg> and added or omitted notes to the melody to symbolize Germany. Furthermore by deriving the subject melody of the French national anthem, Debussy abstractly expressed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of Germany and France. This abstract expression using the hymn's subject melody represented Germany's temporary victory and defeat while <La Marseillaise> and the composition of the Sonata d minor meant the victory of France. This shows that <Sonata for cello and piano in d minor> was composed of Debussy's patriotism for his country France.